

목포권

“진돗개 세계화 관건은 심사 과학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를 세계적인 명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도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돗개 명견화를 위한 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도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돗개 명견화를 위한 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대 진도개 명견화사업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진돗개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혈통관리 체계 확립과 우수 품종 유지 및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서 마련됐다.

이날 공주대 박영석 교수는 주제

郡 ‘진돗개 명견화 심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

심사위원 선발 교육·명확한 평가기준 필요

발표를 통해 “애견을 평가하는 심사원이 우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원 선발과 교육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진돗개 표준 체형에 대한 평가기준이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기능적인 면만 강조해 평가한다면 진돗개 고유의 특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며 “심사원의 관점에 따라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돗개 심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표준체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지식경제부 주관의 ‘지역연고 산업진흥사업’에 진돗개 명견화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오는 2011년까지 국비 21억원 등 모두 48억원을 투입, 진돗개를 세계적인

명견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진돗개 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진돗개 농가 교육과 혈통관리 일원화 등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진돗개 우수 혈통 보존과 발전의 초석이 되고 세계 명견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돗개는 충직성과 청결성, 단아한 품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5월 영국 켈블클럽(KC), 세계 애견연맹(FCI)에 등록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양파 수확 일손돕기 ‘구슬땀’

진도군과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직원들은 최근 의신면 칠전마을에서 양파수확을 도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 제공>

설치냐 재검토냐... 목포 해양분수 ‘마찰’

시민단체 “소음·관광효과·운영비 등 문제 많아” 시 “의회서 예산 승인하고 공론화 거쳤다” 반박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 설치될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음악분수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목포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공사에 들어간 해양음악분수 사업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흡하며 사업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한 데 대해 목포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목포 경실련, 목포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목포 해양음악분수 반대 범시민대책위

원회’는 23일 사업 타당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의심받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목포시가 135억을 들인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 강행 의지만 밝혔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우려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바닷물 날림현상에 의한 주변지역 염해피해나 소음으로

말미암은 피해, 해양생태계에 지속적인 미치지 못할 악영향, 관광 효과, 운영비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음악분수 설치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목포시의회도 설치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보완했으며,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생태계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공사 중단 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기업전용’ 해수욕장 만들어 줍니다

신안군, 30일까지 신청받아 무상 제공

“언제라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해수욕장을 무료로 만들어 줍니다.”

신안군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국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안 섬내 해수욕장 명칭을 기업 이미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붙이고 임직원 수련회·하계휴가 등 전용 해수욕장으로 상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파도소리, 바람소리, 저녁놀 등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속에서 기

업 임직원이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재충전의 장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전용 해수욕장이 생기면 ‘아름다운 신안’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신안군은 최 서남해안에 있는 120만ha의 바다 면적과 1천734km의 해안선, 1천4개의 크고 작은 섬들, 500곳의 해수욕장,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 자연경관과 해상공원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 지역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부실 졸업’ 목포수협 2차 현금 배당

무안·함평 조합원에 4억 7천100만원

7년 만에 ‘부실우려 조합’에서 해제된 목포수협이 무안, 함평지역 조합원에 2차 현금 출자 배당을 한다.

목포수협은 지난 18일 목포, 영암, 나주지역 조합원에 대해 법정 최고액인 10%의 출자배당을 한데 이어 24일부터는 무안, 함평지역 조합원들에게 경영 정상화 보고회와 함께 현금 출자 배당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원 2천953명에 지급될 출자배당금은 모두 4억7천100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12만원(세금 제외)이 돌아간다. 한편, 목포수협은 강도높

은 자구책을 시행한지 7년만인 지난 10일 수협구조개편업무 감독기관인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관리위원회’로부터 부실우려 조합에서 해제됐고 부실조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도 졸업했다.

수협 관계자는 “7년 전 미처리 결손금이 145억원에 달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는데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미처리결손금을 전액 상환하고 경영이 완전 정상화돼 조합원에게 출자 배당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대, GIS 거점대학 2년연속 선정

사회과학대 지적학전공

목포대 사회과학대 지적학전공이 최근 국토해양부 주관의 ‘국가 GIS(지리정보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거점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목포대 지적학 전공은 지역기관 및 산업체에 GIS의 활용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총 82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GIS 기초과정과 GIS 응용과정이 개설돼 각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

다. 교육 내용은 GIS 개론, 수치지도, 원격탐사, GIS기술, GIS 소프트웨어 실습, 공간분석 등의 과목으로 이론과 실습을 결합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국가 GIS 교육센터’ 홈페이지(www.e-gi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용과 교재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과정보로 30명 정도의 교육생 모집, 80% 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이 발급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관문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박차

2014년까지 3천800억 투입... 친환경 주거지로

목포시가 목포항 관문인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3천800억원을 투입해 서산·온금지구 일원 38만8천642㎡를 친환경 신개발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산·온금지구는 목포항의 관문이자 유람선과 더불어 미항

목포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임에도 그동안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과 주변 환경훼손 등 이해의 차이로 인해 2002년부터 개발방향이 대한 구상이 표류, 방치되어 온 지도상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목포시는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람동 일대를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8일간 목포시 원도심재개발과와 유람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7월중 전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고시되면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상반기 중 재개발 촉진계획결정 고시를 하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dong, Gimbudo, National Public Auction, Beonyong, and A+ Apple Plus.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